



명현관 해남군수가 6월29~30일 집중호우 기간 실시간 대응에 주력해줄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으뜸 해남 향한 대도약 시작 미래성장동력 집중 육성

민선8기 2주년 명현관 해남군수
전국 시군 지자체 1위 예산 편성
관내외 고속도로 2025년 개통
솔라시도·화원산단 발전특구 지정
“고속철 국가계획 반영 노력할 것”

해남군은 지난달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2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전반기 성과와 향후 군정발전 방향, 비전을 설명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해남군은 민선8기 출범이후 해남형 ESG 윤리경영을 군정의 전 분야에 도입하고,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6년연속 달성하는 등 신뢰받고 일 잘하는 군정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민선 7기에 비해 예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2030프로젝트가 순항 중이다. 해남군은 하반기 3대 역점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국 군단위 최대 예산 편성

해남군은 2019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6년연속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집행 평가

2년연속 전국 시군 지자체 1위, 국도비 6659억원·공모사업 3092억원 확보 등 역대 최대 재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수치상으로 확인해 보면 민선 7기가 시작되던 지난 2017년 본예산 기준 4630억원에서 2024년 8825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매년 1조3000억~1조5000억원 규모의 전국 군단위 최대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민선 7기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43건, 200억원에 불과하던 공모사업은 지난해 127건, 1501억원까지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공모사업으로만 603건, 6912억원을 확보했고 2017년 1852억원이던 국도비도 2023년 3414억원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또한 매년 높아져 지난해에는 84.3%의 집행율을 거두는 등 2년연속 전국 시군 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일하는 군정상을 확립했다.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성과로는 △고속도로 부자농어촌 실현과 지속가능 미래농업의 기반 조성 △경제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계절 축제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관광활성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세대별 기반시설 확충과 인구정책 시행 △주민참여형 해남형



명현관 해남군수.

ESG의 확산 △대규모 SOC확충과 장기 성장동력 사업 발굴 등이 꼽히고 있다.

●지역SOC사업 탄력

해남을 사통팔달 연결하는 대규모 SOC사업들에도 속도가 붙었다.

보성~해남~임성간 철도 2025년 개통, 국도 77호선 해남~신안 압해간 연결공사 2027년 완공,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강진~해남 구간 2028년 착공 등 해남에 철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해남~대흥사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와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동시에 추진해 관내외의 도로망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5년만에 누적판매 6000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의 지역 상품권으로 우뚝섰다. 해남매일시장은 신축 후 재개장하면서 야시장을 통해 전통시장의 부활을 이끌고 있고, 면단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시책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스포츠마케팅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지난 5월 성황리에 마무리된 해남공룡대축제를 비롯해 사계절 특색있는 축제를 통한 관광객 증가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됐다. 해남군은 땅끝과 대흥사, 우수영, 공룡박물관 등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과 함께 해남 스포츠파크와 복합체육문화센터, 근린생활형 체육관 등 스포츠 기반시설을 확충해 비수기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이다.

●기회발전특구지정 눈길

가장 최근 눈에 띄는 성과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들 수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단지 2개소, 총 26만평이 정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해남군 기회발전특구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데이터센터 조성 66만㎡(20만평)와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20만㎡(6만평) 등 총 86만㎡(26만평)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첨단전략산업이 육성된다.

해남군은 민선8기 후반기 역점사업으로 이미 지정이 완료된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해양관광레저거점 조성, 고속철도(KTX) 해남노선 국가계획 반영 등 3대 역점사업과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및 농업연구단지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 및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산양식기재 클러스터 조성,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더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대부분 사업이 지금하지 않으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할 어렵고 힘든 사업이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첫 단추를 성공리에 꿰게 된 만큼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사통팔달 살기좋은 경제도시의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군민 부담금 경감

해남군은 7월1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밖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인하되는 한편 관광지, 관광단지, 전통시장의 감면 기한이 연장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해 개별공시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부과 상한액은 ㎡당 5만원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

소용되는 비용을 부과해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지·관광단지외 전통시장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도 2025년까지 연장됐다.

유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농지전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의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 우슬맨발산책로 문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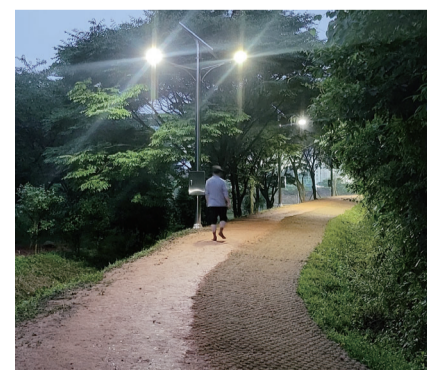
가로등 설치 야간 운영

해남군의 맨발걷기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우슬산책로에 가로등이 설치돼 군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맨발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맨발산책로 구간 전체에 가로등 11개소를 설치해 야간 운영에 편의를 더하고 있다.

가로등 점멸 시간은 오전에는 해뜨기 1시간 30분 전, 오후에는 해가 진후 5시간 가량으로 당일 일출일몰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맨발 산책로 구간에 화장실이 없는 점을 감안, 산책로와 제일 가까운 인근 공도장(만수정)의 화장실을 개방해 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안내판도 설치하고 보행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조성된 우슬산책로는 해남읍 해리의 해남군 보건소 뒷편 우슬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해 우슬체육공원내 우슬체육관까지 이어진 길이다.

기존 크로스컨트리장을 리모델링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을 조성했다. 꾸준한 시설 확충을 통해 90㎡ 규모의 습식 황토 체험장과 우천시에도 걸을 수 있는 야자매트, 세족장과 신발장, 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다.

개장이후 하루에도 수백명의 군민들이 이용하는 맨발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는 것은 물론 인근 우슬체육관에서 전기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힐링 장소로도 활용되어 스포츠마케팅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우슬맨발산책로에 이번 가로등 설치로 주야간 연중무휴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